

#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및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and Self-esteem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장인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Insil Jang(isjang@ulsan.ac.kr)

###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성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시내 일개 종합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대학생 201명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동성애태도는 성별, 졸업한 중·고등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성애 태도는 성역할태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별과 성역할태도였으며, 동성애 태도의 영향 요인으로서 31.0%를 설명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취할수록 동성애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므로 동성애의 긍정적 인식을 위해,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건강한 정체성 개발 및 수용을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접근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대학생 | 성역할태도 | 자아존중감 | 동성애 태도 |

### Abstract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tudy done to determine the relevance and impact factors of gender role attitude and self-esteem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201 college students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 in one university of Ulsa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linear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21.0).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included gender, former middle-high schools.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gender role attitude. And gender and gender role attitude accounted for 31.0% of the variance i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were gender and gender role attitude. The more males than females and the mor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were more negative toward homosexu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program and establish a service program according to gender in order to develop and accept healthy identity of college students for the positive view on homosexuality.

■ keyword : | College Students | Gender Role Attitude | Self-esteem |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동성애(homosexuality)란 생물학적으로 같은 성에 대해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 의하면 성적 지향이란 개개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규정하며, 질환이 아닌 성적 지향력(sexual orientation)에서의 문제나 생활 스타일에서의 차이로 보고 있다[1][2].

지난 수세기 동안 진행된 동성애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동성애 관련 연구들이 점차 줄어들고 동성애를 인간 성애의 정상적인 한 종류로 바라보는 경향이 확립된 것을 알 수 있다[3]. 한국사회에서도 더 이상 문제의 관점보다는 현상의 관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드라마, 영화 등의 미디어를 통한 동성애 콘텐츠의 사회적 수용을 보면 알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동성애의 원인과 진단에 대한 논문은 더 이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동성애 태도, 동성애 혐오, 동성애 정체성 발달과 HIV/AIDS,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3-5].

그러나 다수가 아닌 이유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에서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편견,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만성적으로 겪게 된다[5][6].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인권 보장과 차별 개선, 결혼의 합법화에 대해 법적 효력을 실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2][7]. 동성애자의 심리적 부적응은 다수인 이성애자가 지니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8].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경향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학대 및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위축되고, 자기혐오, 분노, 의심이라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심한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8]. 한국의 다양한 청소년 상담 사례에서 11-17.7%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동성애 경험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 이상 동성애 관련 문제는 소

수만의 문제로 간과하기에는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9].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다수인 이성애자들이 지니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여 편견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주의의 성향일수록, 종교생활에 적극적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나타났다[2][10-12]. 반면, 동성애 관련 수강경험이 많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13].

시대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동성애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역할이란 행위나 태도가 남녀별로 적절한 것으로 규정된 문화적 기대치이며, 개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문화적 기대를 뜻한다[14]. 성역할태도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나 인식으로서 전통적인 태도와 현대적인 태도로 나누어지며 남녀평등 의식과 관련이 있다[8][15][16].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고수할수록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동성애혐오가 클수록 동성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8][16]. 전통적인 역할이 강할수록 대인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높으며, 성차별 인식과 관련은 있으나 실증적인 연구는 찾기 어렵다[15][17].

또한 기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동성애 태도의 주요 변수로 확인하였으나, 관련성은 연구마다 상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은 성행동과 밀접한 관계이며, 동성애 태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변수로 설명되고 있다[5][18][19].

지금까지의 한국 동성애 관련 연구는 동성애자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본 연구는 동성애에 대한 다수의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확인함으로써 이성애자들의 동성애 관련 편견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위한 시도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과 동성에 태도를 확인하고, 동성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의 성역할태도 및 자아존중감을 분석하고 동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에 태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에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에 태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동성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에 태도를 확인하고,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소재의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으로 편의표출 하였다. 성별, 학년 및 학과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교양과목시간과 도서관을 선택하여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동성에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을 예측변수로 적용하였을 때 12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표본수 210명은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1일에서 10월 12일까지 6주 동안 이루어졌다.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피험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지와 함께 연구의 목적과 응답의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 참여의 자발성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였으며, 개별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다. 전체 설문 탈락률을 고려한 250부를 배포하여 총 213부가 수거되었으나, 설문조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3부를 제외한 210부(84.8%)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 3. 연구도구

### 3.1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남성, 여성으로서 내면화된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이야기한다[5].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척도(Gender-role attitude scale, GRAS)를 사용하였다. GRAS는 정중희[20]가 Osmond와 Martic[4]의 Sex-role orientation(SRO) 32문항 중 16문항과 Mason과 Bumpass[21]의 Sex-role ideology scale(SRI)의 17문항 중 5문항을 선별하여 문항들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총 21문항으로 제작한 척도이다. GRAS는 여성 및 남성의 가정역할, 여성의 직업역할, 일반적인 성 고정관념이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성역할태도의 전통, 진보,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5점 척도로 '매우 찬성한다' 5점, '찬성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반대한다' 2점, '매우 반대한다' 1점으로 평가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성역할태도를 나타낸다. 원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4이다.

### 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22].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Jon[23]이 번안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Jon[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1이다.

### 3.3 동성애 태도 척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에 대한 측정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te와 Deaux[24]의 동성애 태도 척도(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고정관념, 오개념, 동성애에 대한 염려를 측정한다. 문항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일한 사회적, 종교적, 법적 권리를 가지는 문제(직업선택권, 종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다. 측정기준은 5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 ‘동의하지 않는다’ 4점, ‘중립적이다’ 3점, ‘동의한다’ 2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1점으로 평가하며, 부정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차원에서 동성애 태도가 호의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원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92,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 이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로 확인하였다.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으며,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linear multiple regression으로 확인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평균 20.62세로 1학년이 60.5%(127명)로 가장 많았다. 졸업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이 각각 57.6%(121명), 52.4%(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정도가 ‘전혀 아니다’인 사람이 74.8%(157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정도가 ‘매우 그렇다’인 사람이 42.9%(90명)로 가장 많았다. 성적인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97.1%(204명)이었으며, 본인의 성정체성을 이성애자라고 답한 사람이 96.1%(202명)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149 (71.0)
	Female	61 (29.0)
Age(yr)		20.62±2.19
	18	22 (10.5)
	19~20	106 (50.5)
	21~25	76 (36.1)
	≥26	6 (2.9)
Grade	Freshman	127 (60.5)
	Sophomore	40 (19.0)
	Junior	27 (12.9)
	Senior	16 (7.6)
Former middle schools	Girls' middle school	10 (4.8)
	Male middle school	39 (18.6)
	Coeducational middle school	121 (57.6)
	No answer	40 (19.0)
Former high schools	Girls' high school	17 (8.1)
	Male high school	82 (39.0)
	Coeducational high school	110 (52.4)
	No answer	1 (0.5)
Degree of sexual attachment to same sex	Absolutely not likely	157 (74.8)
	Not likely	25 (11.9)
	little likely	10 (4.8)
	A little likely	5 (2.4)
	Moderately likely	12 (5.7)
	Very likely	0 (0.0)
Completely likely	1 (0.5)	
Degree of sexual attachment to the other sex	Absolutely not likely	2 (1.0)
	Not likely	2 (1.0)
	little likely	5 (2.4)
	A little likely	36 (17.1)
	Moderately likely	33 (15.7)
	Very likely	42 (20.0)
Completely likely	90 (42.9)	
Counseling	Yes	6 (2.9)
	No	204 (97.1)
Gender identity	Homosexual	1 (0.5)
	Bisexual	5 (2.4)
	Pansexual	0 (0.0)
	Transgender	2 (1.0)
	Heterosexual	202 (95.1)
Gender identity after 10 years	Absolutely changed	3 (1.4)
	Might be changed	20 (9.5)
	Might not be changed	61 (29.0)
	Absolutely not changed	126 (60.1)

### 2.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

대상자가 지각한 성역할 태도는 평균 2.10±0.65점이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2.81±0.50점, 동성애 태도 척도는 3.06±0.54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Mean Scores for Gender Role Attitude, Self-Esteem and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210)

Variables	Range	M±SD	Min	Max
Gender role attitude	1-5	2.10±0.65	1.00	5.00
Self-esteem	1-4	2.81±0.50	1.10	4.00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1-5	3.06±0.54	1.19	4.66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 차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태도의 차이분석은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졸업한 고등학교(F=2.933, p=.035),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 정도(F=4.890, p<.001), 성적체성(F=2.522, p=.042)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연령(F=2.749, p=.044),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 정도(F=3.800, p=.003)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성애 태도는 성별(t=-6.152, p<.001), 졸업한 중학교(F=6.098, p=.001), 졸업한 고등학교(F=10.15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표 3. Differences in Gender Role Attitude, Self-Esteem and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0)

Categories	Gender role attitude		Self-Esteem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45.05±8.47	1.404 (.162)	28.05±5.38	-.104 (.917)	64.26±10.99	-6.152 (<.001)
Female	42.14±10.10		28.13±3.68		74.41±10.51	
Age(yr)						
18	40.18±8.47		28.18±4.31		71.36±8.74	
19~20	45.86±12.41	2.009 (.114)	27.20±5.09	2.749 (.044)	67.58±10.50	2.558 (.056)
21~25	43.75±16.24		29.30±4.80		64.96±13.88	
≥26	35.57±9.55		27.60±3.38		73.83±7.78	

Grade						
Freshman	44.71±12.86		27.46±4.91		67.90±10.78	
Sophomore	43.80±15.28	1.066 (.365)	28.92±5.47	1.811 (.146)	65.42±11.69	2.288 (.080)
Junior	45.74±16.43		28.68±4.52		63.62±13.59	
Senior	38.65±9.91		29.75±3.94		72.20±14.74	
Former middle schools						
Girls' middle school <sup>a</sup>	47.41±8.37	.886 (.449)	27.36±3.45	1.549 (.203)	74.80±11.25	6.098 (.001)
Male middle school <sup>b</sup>	46.72±16.52		28.36±6.78		61.02±12.87	b,c(a)
Coeducation al middle school <sup>c</sup>	43.69±13.78		23.20±.65		68.74±10.89	
Former high schools						
Girls' high school <sup>a</sup>	43.26±10.22	2.933 (.035)	27.34±2.66	.831 (.478)	77.18±11.94	10.158 (<.001)
Male high school <sup>b</sup>	47.54±16.36		28.70±5.59		62.80±12.25	b(c(a)
Coeducatio nal high school <sup>c</sup>	41.97±11.36		27.76±4.69		69.04±9.95	
Degree of sexual attachment to same sex						
Absolutely not likely <sup>a</sup>	43.79±12.28	4.890 (<.001)	28.53±4.94	3.800 (.003)	66.16±10.81	1.825 (.109)
Not likely <sup>b</sup>	46.44±17.27		27.79±4.55	d(a,b,c)	69.56±14.24	
Little likely <sup>c</sup>	46.00±16.14		27.28±5.60	e	71.11±5.65	
A little likely <sup>d</sup>	38.38±13.65		24.32±2.30		63.80±15.02	
Moderately likely <sup>e</sup>	40.91±9.88		26.28±2.26		74.75±11.76	
Degree of sexual attachment to the other sex						
Absolutely not likely	65.50±55.86		17.20±8.48		66.00±7.07	
Not likely	48.50±23.33		25.20±3.96		64.00±1.41	
Little likely	40.20±5.44	1.496 (.181)	28.48±4.58	1.833 (.094)	68.80±5.26	1.614 (.145)
A little likely	43.22±12.83		28.16±4.35		67.98±13.30	
Moderately likely	45.97±10.02		27.90±4.04		72.51±10.90	
Very likely	46.56±15.57		28.44±4.94		65.02±12.98	
Completely likely	42.51±12.83		28.21±4.94		65.99±10.91	
Gender identity						
Homosexual	54.00	2.522 (.042)	29.60	1.337 (.257)	64.00	.799 (.527)
Bisexual	46.80±		25.31±		70.40±	

	7,98	4,75	8,29
Transgender	71,00± 48,08	22,00± 15,27	63,50± 3,53
Heterosexual	43,96± 13,22	28,22± 4,83	67,02± 11,86
Gender identity after 10yrs			
Absolutely changed	47,33± 9,07	29,60± 3,20	61,66± 5,85
Might be changed	40,85± 13,40 (.643)	25,65± 3,44 (.206)	73,05± 11,62 (.138)
Might not be changed	45,90± 11,55	28,16± 3,75	67,60± 12,73
Absolutely not changed	43,79± 14,7	28,41± 5,61	66,14± 11,22

4.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태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 $r=.144, p=.036$ )로 나타났으며, 반면 성역할태도와 동성애태도는 부적 상관관계( $r=-0.438, p<.001$ )로 나타났다[표 4].

표 4. Correlations of Gender Role Attitude, Self-Esteem,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210)

Variables	Gender role attitude	Self-esteem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Gender role attitude	1		
Self-Esteem	.144(.036)	1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438(<.001)	-.023(.745)	1

5. 대상자의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동성애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성별, 졸업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성역할태도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범주형 변수인 성별은 가변수 처리(남=1, 여=0)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은 각 변수들의 잔차 분석을 위한 Durbin Watson값이 1.596으로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se Inflation Factor, VIF)가 모두 10 이하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7.78, p<.001$ ). 대상자의 동성애 태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졸업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유의하지 않아 제거하였다.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beta=-0.353, p<.001$ ), 성역할태도( $\beta=-0.404, p<.001$ )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동성애 태도에 대해 3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5. Influencing Factors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210)

Variables	B	$\beta$	p	t	VIF
(Constant)	89,101		<.001	36,461	
Gender	-9,141	-.353	<.001	-6,114	1,009
Gender role attitude	-.348	-.404	<.001	-6,999	1,009

$R^2=.32, Adj.R^2=.31, F=47.78,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과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이성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성역할태도는 평균 2.10±0.65점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문헌의 경우 평균 2.26-3.07점으로 본 연구 결과가 더 낮게 나타났다[15][25][26].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성별에 따른 역할 인식이 보수적인 시각에서 현대적인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2.81±0.50점이며, 이는 다른 문헌에서 언급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평균 3.78-4.02점 보다 낮았다[5][18][19][25][26]. 일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료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하나, 기존 문헌에 비해 대상자의 60.5%가 1학년으로 대학생활의 적응기로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볼 만하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의 적응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므로[31], 추후 학년과 성별의 비를 맞추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성애 태도는 평균 3.06±0.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 연구의 동성애 태도는 평균 3.19점으로 크게 다르지 않

았다[32]. 그러나 기존 연구의 동성애 태도는 동성애 혐오(homophobia)를 확인한 연구가 많았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동성애에 대한 시각 변화로 부정적 시각 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확인하고 측정하기 위해 Kite와 Deaux[24]의 동성애 태도 척도(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를 사용하였으며, 박선진(2010)의 연구에서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나,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2]. 또한 동성애 태도에 대한 다양한 척도들이 사용되고 있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구 개발 및 타당성(validation) 연구도 필요 되어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졸업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따라 동성애 태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심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들과 공통적인 결과이다[2][10-12][27]. 또한 여자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남남공학이나 남자 중·고등학교보다 높은 동성애 태도 척도를 나타내어 성별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전통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Harbaugh와 Lindsey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사회적 역할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전통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28]. 본 연구대상자의 71%가 남성이었으므로, 남성의 사회적 역할과 보수적 성역할태도가 상대적으로 부각된 이유일 수 있다. 반면 성역할태도와 동성애 태도는 뚜렷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전통적이며 고정관념적인 사람일수록 동성애 태도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5][8][16][27].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동성애 태도는 관계가 없었으며, 다양한 논문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5][18][19][26][2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동성애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들과[18][29], 반대로 높은 자아존중감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높이는 것으로도 확인하였다[5]. 이는 기존 문헌들의 한국과 미국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적 차이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성

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변인들을 설정하여 상호작용에 관한 효과 및 정확한 경로 과정 규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성별과 성역할태도였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동성애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님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기존 연구결과와 일관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5][8], 사회적 권위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소수집단인 동성애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은 대학생들에게도 아직 낮은 게 현실이다. 동성애자들은 많은 차별과 부정적인 시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동성애 관련 문제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수의 이성애자들이 이끄는 사회적 편견은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착화하기 위한 시작 단계로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동성애 관련 수강경험이 있을수록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었다[5][13]. 그러므로 동성애 혐오를 줄이기 위한 개입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성애 태도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성별의 차이에 주목하여 남학생에게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양 수업의 다양성, 미디어 공유를 통한 토의수업 등의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이므로,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양적 및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가정에서 답습하게 되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아닌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태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은 학생의 건강한 정체성을 개발 및 수용을 위한 기회 제공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대학생의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성별과 성역할태도는 동성애 태도에 대해 3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동성애 태도의 중요한 영향요인은 성별과 성역할태도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취할수록 동성애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으나, 한국 대학생의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영향 변수로 성별 및 성역할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성애 태도는 개인의 다양한 정서와 가치관,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 참고 문헌

[1] C. Silverstein, "The implications of removing homosexuality from the DSM as a mental disorder,"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38, No.2, pp.161-163, 2009.

[2] 김철권, "게이와 레즈비언을 다룬 영화가 의과대학생의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영화연구*, 제56권, pp.103-128, 2013.

[3] J. C. Phillips, K. M. Ingram, N. G. Smith, and E. J. Mindes, "Methodological and content review of lesbian-, gay-, and bisexual-related articles in counseling journals: 1990-1999,"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31, No.1, pp.25-62, 2003.

[4] N. W. Osmond and P. Y. Martin,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7, No.4, pp.744-757, 1975.

[5] J. Lee, D. Y. Shim, M. O. Yang, and H. S. Kim, "The Effects of Sexual Behavior and Self-Esteem on Homophobia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 pp.543-553, 2015.

[6] A. L. Robert, S. B. Austin, H. L. Corliss, A. K. Vandermorris, and K. C. Koenen, "Pervasive trauma exposure among US sexual orientation minority adults and risk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100, No.12, pp.2433-2441, 2010.

[7] A. Avery, J. Chase, L. Johansson, S. Litvak, D. Montero, and M. Wydra, "America's changing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civil unions, and same-gender marriage: 1977 - 2004," *Social Work*, Vol.52, No.1, pp.71-79, 2007.

[8] 서영석, 이정립, 차주환,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1호, pp.177-199, 2006.

[9] 이영선, 권보민, 이동훈,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제19권, 제1호, pp.129-147, 2012.

[10] 이봉재, "동성애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태도 관련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pp.1-19, 2006.

[11] B. Finlay and C. S. Walther, "The relation of religious affiliation, service attendance, and other factors to homophobic attitudes among university student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Vol.44, No.4, pp.370-393, 2003.

[12] M. E. Kite and K. B. Bryant-Le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Teaching of Psychology*, Vol.43, No.2, pp.164-170, 2016.

[13] P. Camilleri and M. Ryan,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nd their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homosexual parenting as an alternative family unit: An Australian study," *Social Work Education*, Vol.25, No.3, pp.288-304, 2006.



- [14] 김순연, *미혼남녀의 가족관계만족도와 결혼관 및 성역할관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5] 김은경, 심준섭,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과,”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pp.323-347, 2016.
- [16] 김은하, 신윤정, “중·고등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적 공감에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3권, 제3호, pp.431-453, 2016.
- [17] 김영미, 류연규, “남성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2호, pp.271-299, 2016.
- [18] P. S. Theodore and S. A. Basow, “Heterosexual masculinity and homophobia: A reaction to the self?,” *Journal of Homosexuality*, Vol.40, No.2, pp.31-48, 2000.
- [19] R. W. M. Kan, K. P. Au, W. K. Chan, L. W. M. Cheung, C. Y. Y. Lam, H. H. W. Liu, L. Y. Ng, M. Y. Wong, and W. C. Wong, “Homophobia in medical students of the University of Hong Kong,” *Sex Education*, Vol.9, No.1, pp.65-80, 2009.
- [20] 정종희,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1] K. O. Mason and L. L. Bumpass, “US women’s sex-role ideology, 197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0, No.5, pp.1212-1219, 1975.
- [2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3]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11, No.1, pp.107-130, 1974.
- [24] M. E. Kite and D. Deaux,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ssessment and behavioral consequenc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7, No.2, pp.137-162, 1986.
- [25] K. S. Baek and H. S. Kim,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gender-role attitudes and family functioning on perceptions of marriag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8, No.3, pp.205-223, 2013.
- [26] 유계숙, 오아림, “대학생의 구직관련태도 및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23권, pp.145-170, 2011.
- [27] 강현선, 김현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동성애에 대한태도에 미치는 영향: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제47권, pp.7-29, 2016.
- [28] E. Harbaugh and E. W. Lindsey,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mong young adults: Connections to gender role identity, gender-typed activities, and religiosity,” *Journal of Homosexuality*, Vol.62, No.8, pp.1098-1125, 2015.
- [29] T. Q. Nguyen and R. W. Blum, “Homosexuality Tolerance Among Male and Female Vietnamese Youth: An Examination of Traditional Sexual Values, Self-Esteem, and Demographic/Contextu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55, No.6, pp.823-829, 2014.
- [30] 신승배,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1호, pp.380-415, 2013.
- [31] 박희수, 문승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pp.197-219, 2014.
- [32] 박선진, *동성애에 관한 고등학교 사회과교사의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저 자 소 개

장 인 실(Insil Jang)

정회원



- 2008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 심혈관질환